



도성(뽀나산도) 스님은...

1925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했다. 1953년 부산 선암사에서 지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선암사, 불국사, 석굴암, 동화사 등에서 참선 정진을 했다. 1972년 태국 방콕 왓벤자마보딛 사원에서 비구계를 받은 스님은 미얀마의 마하시 선원, 태국의 웨웍야숨 위빠사나명상센터, 스리랑카 비구아일랜드 등에서 수행한 후 귀국해 근불교를 전하고 있다. 해인사 주지, 대흥사 주지, 조계종 전국 본사주지연합회 회장과 태국 마하 풀라통콘대학 한국분원 학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 스리랑카 상가로부터 '삼붓다 사사나 조피까 마하테라'라는 최고의 칭호를 수여 받았다. 1973년 부산 태종사를 창건해 현재 조실을 맡고 있으며, 2009년 10월 31일 한국테라와다불교 상가라자(승정)에 추대됐다.

1983년 우 뽀디따 스님 만나 본격 위빠사나 수행

“1시간이라도 더 늙기 전에 빨리 정진하세요”

마음이 주인공 되어 관찰하며 사는 게 수행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막바지 한파가 위세를 떨치던 1월 16일 오전. 서울 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다. 기차여행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향한 설레임과 즐거움을 준다. 2시간 52분, 창밖으로 스쳐가는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부산역이다. 서울엔 아직 찬 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했는데, 바닷바람은 온기를 품고 있었다. 부산역광장 건너편에서 101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리니, 부산을 대표하는 암석해안의 명승지 태종대 입구가 보인다. 삼삼오오 짝을 지은 연인들과 아이들을 동반한 젊은 부부들이 관광지로 쏟아져 들어간다. 200여 종의 울창한 수목과 어우러진 기암괴석, 탁 트인 전망이 일품인 태종대는 신라시대 태종 무열왕이 전국의 명승지를 다니던 중, 영도의 절경에 도취되어 쉬어갔다고 해서 태종대라 명명 됐다. 이곳에서는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대마도가 보여 예부터 시인, 묵객들이 많이 찾던 곳이기도 하다. 해발 250m에 달하는 암석해안 종턱에는 폭 7m의 순환관광도로가 4.4km에 걸쳐 있는데, 우측으로 운행하는 '다누리'라는 관광열차를 타면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

가 소요된다. 필자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만끽하기 위해 다누비를 타지 않고 반대 방향인 태종사로 천천히 걸어올라 갔다. 한 10여 분을 걸었을까, 태종사 표지석이 눈에 들어온다. 관광지라 소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기우와 달리,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아담한 절이었다.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남방불교의 정취가 느껴지는 독특한 도량이다. 무엇보다 한국에 테라와다(上座部 불교를 다시 도입, 근불교의 정신을 되살려 위빠사나 중심의 부처님 수행법을 보급하는 토대를 일군 도성(道成, 뽀나산도) 스님이 조실로 주석하는 절로 이름이 높다. '테라와다(Theravada)'는 장로(長老) 또는 연장자의 의미로, 테라와다불교는 주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남방 지역의 불교를 말한다. 1990년대 초부터 남방불교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한 스님들과 재가 수행자들이 2009년 10월 31일 창립한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뽀나와로)의 최고지도자인 상가라자(僧正)에 추대된 고승이 도성 스님이다.

태종사 종무원의 안내로 지대방에서 기다리니, 바로 옆방에서 도성 스님이 나오신다. 86세의 세수(호적상은 1919년생으로 92세)가 믿기지 않는 꼴꼴하고도 건강한 신체와 고운 피부가 눈을 의심케 한다. "이건 금전차(金錢茶)라고 하는데, 드셔봐요." 이 차는 금전초(金錢草)라는 야생초를 말린 차로, 전립선과 담석 제거에 효능이 탁월하다고 한다. "절 주변에 널려 있는데, 금전차를 마시고 담석이 급세 사라진 분들이 많죠. 금전초가 몸에 닿기만 했는데 건강해진 분들도 있었어요." 부드럽고 맑은 차맛이 약초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야말로 아무런 특징도 없는 무덤덤한 맛이 고나 할까. 고요고요하고도 또렷또렷한 수행을 통해 이른 삼매의 상태를 아무런 재미도 없는 물자미(滋味)한 맛이라고 하는데, 감각을 조율한 맛이 이 맛 이 아닐까 싶다. 도성 스님이 이 금전초가 몸에 좋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태종대 곳곳에 금전초 씨를 뿌렸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손길에 닿거나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자비를 베푼 것이다. 스님이 무심코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심이 배어있는데, 세심히 보지 않으면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것만 같다. 차를 마시며 스님은, 얼마 전 태국을 여행했을 때 "한국에서 남방 가사를 40여 년 입었다"는 말에 현지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성 스님은 은사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율사였던 지월 스님이 1969년 스리랑카에서 가사 한 발을 가져온 후 남방 가사를 수시로 입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72년 태국의 테라와다 계를 받은 후, 지월 스님과 석암 스님의 허락하에 남방 가사를 계속 입게 됐다. "자네가 그것이 절대 옳다고 믿는다면 입어도 좋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서 불구하고 이러한 말로 격려한 지월 스님이나 당신의 신념대로 한 길을 걸어온 도성 스님의 삶 자체가 무소의 빨처럼 당당히 홀로 걷는 구도자의 전형으로 느껴졌다. 젊은 시절,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며 석우 스님, 효봉 스님, 보문 스님, 동산 스님, 성철 스님 등 당대의 고승을 친견하며 견화선을 참구하기도 한 스님은 남방 가사를 입기 시작하면서 근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1973년 태종사를 창건한 스님은 태국에서 불상을,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기증받은 등 가야, 신라시대 이후 거의 단절된 남방불교를 다시 한국에 도입하는 데 앞장섰다. 도성 스님은 가락불교는 인도 아유타불교를 직수입 했으며, 원호 스님과 조의 선사는 지관선법(止觀禪法)을 전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남양해사 스님의 <대승지관법문>에 따르면, '지(止, 사마타)'란 우리 의식이 대상을 향해 작용하는 것을 돌이켜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것

으로, 망념이 생사의 세계로 흐르지 않게 하는 수행이다. '관(觀, 위빠사나)'은 의식이 대상을 향해 관조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만법이 허깨비(환상)로 존재한다는 이치를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한국에 전해져 오는 지관법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하며 실참을 닦아오던 도성 스님은 1983년, 15세 연하인 거해 스님을 통해 미얀마 마하시센터의 우 뽀디따 스님을 만난 후, 본격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했다. 이후 팔리어 공부할 원하는 이들을 위해 스리랑카 마하출라통콘대학 한국분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도성 스님이 해인사 주지소임을 맡을 정도로 기독교를 지닌 입장에서 생소한 남방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수행법에 무슨 결함이 있길래 도통(道通)했다는 스님들이 다른 사람 보다 나은 게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요." 도성 스님은 깨달았다는 도인들이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수행법'으로 알려진 위빠사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때부터 스님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남방 불교국가를 순례하며 수행법과 교학을 배우고, 예불도 팔리어로 해왔다. 30여 년간 팔리어로 외우는 아침 저녁 예불을 거른 적이 없으며 여행중인 경우도 혼자서 예불을 올릴 정도로 근불교에 대한 확신은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쑥뜸과 지압을 간편하게



쑥뜸 지압봉 (특허 및 디자인 출원)

황동제질의 금도금 수제 명품! 풀 자극, 화상 걱정 없음...



일반형 99,000원 고급형(음각) 128,000원 고급형(양각) 148,000원

- 구성
- 쑥뜸 지압봉 (16.5cm)
- 휴대용쑥 (2개입) + 쑥뜸 목 + 쑥 (30개입)
- 쑥 - 추가 별도구매 가능



- 이런 분께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수행 정진할 때 또는 경전 읽을 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
-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
- 노안이 시작되었거나 진행중인 분.
- 시력저하로 고민하신 분.
- 손발이 차신 분.
- 코가 자주 막혀 고생하시는 분

쑥뜸지압봉은 휴대가 간편하여 여행이나 출장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구입하실 때는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9001 / 14001인증업체

다우정밀 서울 중구 인정동 168-1 ☎ 02)2263-6853 / 011-348-6853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서울 · 경기 : 02)456-8831
- 강원도 : 019-396-1110
- 충청도 : 010-8674-2357
- 경상도 : 011-327-7697
-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 지붕 공사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인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창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채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기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들을 말합니다."

-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매경)

불사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